

# 임실 폭염과의 전쟁 선포

### 군 보건의료원, 취약계층 대상 건강상태 점검·국민행동요령 홍보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일 박진두 부군수는 간부회의를 갖고, 폭염 장기화에 따른 예방대책을 거듭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가축이 폐사하고, 은열 질환과 열사병이 속출하는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 보건의료원은 방문보건 전문인력인 방문간호사를 비롯하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 전 직원이 폭염건강도우미를 자처, 활동 중이다.

이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안부전화 등을 통해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국민행동요령과 폭염 시 건강이상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 등을 집중 홍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은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할 것 ▲한낮에는 외출이나 논일, 밭일, 비닐하우스 작업은 자제할 것 ▲무더운 날에는 야외활동을 삼가하며 햇볕을 차단할 것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할 것



23일 박진두 부군수는 간부회의를 갖고, 폭염 장기화에 따른 예방대책을 거듭 강조했다.

등이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만성질환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현기증과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 즉시 119를 통해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의료원 관계자는 당부했다.

현재까지 임실군에는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돼지 60두와 닭 1만 9000마리, 소가 7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진두 부군수는 “앞으로도 열흘 이상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농축산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폭염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 어린이 직업체험 성료

### 대상 순창공장·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상(주)순창공장(공장장 임병용)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전북 지역본부장 송동하)은 지난 21일 순창지역의 아동 50여명에게 진로·직업 체험교육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진로·직업 체험교육은 다양한 활동 기회가 적은 순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직업관 형성 및 꿈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분야의 일터 멘토의 체험단 및 조언을 통해 직업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체험에 참여한 박혜진(11세·여) 아동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다. 초콜릿이(초콜릿요리사)라는 직업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는데 초콜릿은 프랑스로 초콜릿이라고 했다. 모양들에 액체 초콜릿을 담으면 이쁜모양의 초콜릿이 만들어져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달콤한 초콜릿을 매일 먹을 수도 있



고 만들어 선물도 할 수 있어서 커서 초콜릿이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였다.

임병용 대상(주)순창공장장은 “무한한 재능을 지닌 순창 지역의 아이들의 직업 체험을 통해 다양한 생각과 가능성을 키워주고 스스로 꿈을 찾아,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 집중감찰로 공직기강 확립

남원시는 8월 17일까지 약 39일 간을 하계 휴가철 집중감찰기간으로 정하고, 공직기강 해이와 우리 시를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피서객 안전·편익시설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는 감찰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감찰반은 감사실장의 총괄 아래 2개반 6명으로 편성했으며, 시 산하 전 기관 및 공직자 대상으로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직감찰 기간 중에는 휴가를 이유로 민원처리 지연 등 무사안일 행태행위, 휴가철에 편승한 급품·함응수수 등 청렴의무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음주 운전·도박·성범죄 등 공직기강 문란 행위, 공원, 하천, 계곡 등 피서객 편익 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한편 이원주 시장은 “휴가철 공직감찰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방문한 피서객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중요한 감찰활동이라며, 이번 집중 공직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시설하우스 온도하강사업 호평

순창군이 폭염에도 시설하우스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고온기 시설하우스 온도하강 사업’을 시작해 농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23일 순창군에 따르면 ‘시설하우스 온도하강사업’은 시설하우스에 바이오콜네트라는 자재를 사용해 시설하우스 온도를 낮추고 생산성은 높이는 사업이다.

바이오콜네트는 태양광선 중 열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적외선을 반사시키고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가시광선은 투과시켜 식물이 생장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시설하우스에 차광막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설하우스 내 온도를 5°C 낮추는 효과는 물론 작업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군은 올해 32농가에 4ha 규모로 일억원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바이오콜네트는 고온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9월 초까지 사용 가능하며 하우스 재배물 및 육묘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가지과, 딸기, 파프리카 등 고온기에 재배되며 고가에 판매되는 작물에서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한재우 금과면농업인상담소장은 “바이오콜네트는 원에 작물에 효과가 입증되었고 다른 작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 5년 사용기간에 비해 비용이 비싸서 농가에게 부담이 되며 장기성을 보완을 위해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 금과면 ‘다올센터’ 건립 속도낸다

### 57억원 투자 소재지정비사업 본격 추진... 지역 특징 반영 주민만족도 높아

순창군 금과면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군은 57억여원을 투자해 진행 중인 금과면 소재지정비사업 중 다올센터 건립 공사가 본격 추진되면서 금과면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다올센터는 실내 체육관 952㎡, 실내 게이트볼장 600㎡가 들어서는 복합문화 공간이다. 실내체육관은 베드민턴 3개코트 규모로 농구, 탁구 등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하고 우천시 대규모 먼 행사도 가능한 규모다.

남녀화장실과 샤워실 음향실, 대기실 등도 갖춘다. 그동안 금과면에는 실내에서 대규모 체육행사를 진행할 공간이 없어 불편하다는 주민 여론이 있었다.

특히 게이트볼 인구 증가로 인해 4계절 게이트볼 경기가 가능한 게이트

볼장 조성에 대한 여론이 꾸준히 이어 왔다.

특히 최근 점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야외 게이트볼장에서는 경기가 불가능해 사업에 대한 노인층이 거는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다올센터는 기초타설을 완료하고 벽체 레미콘 타설이 진행중이고 게이트볼장은 골조를 완료하고 지붕 작업 중이다.

전체 공정률은 20%정도다. 군은 당초 2019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다올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준공 기일을 1년 정도 앞당겨 우선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이번 사업 추진 시 체육관과 게이트볼장 거리가 불과 10m로 부지가 좁아 추가부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금과면민들이 일일차집을 열

어 토지 매입비 5,000만원을 기증해 매입한 토지가 활용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도 크다.

군은 사업 추진 첫 과정에서부터 금과면민들과 소통해 면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사업 만족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다올센터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면서 면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면서 “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올해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과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다올센터 이외에도 26대 규모의 주차장과 순창을 배경으로 지어진 조선중고 고전소설 설공찬전(충종11, 채수)의 이야기를 배울 수 있는 금과를 대표하는 설공찬 문화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무인헬기 이용 벼 병해충 방제 총력

임실군이 무인헬기를 띄워 벼 병해충 방제작업에 돌입한다.

무인헬기를 활용한 벼 병해충 방제 작업은 민선 6기부터 진행된 공약사업이다.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며 민선 7기에도 이어진다.

오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1차와 2차로 나뉘어 실시된다. 대상지역은 오수면 등 8개면이다.

이를 위해 군은 방제를 주관하는 임실군과 읍면사무소 담당직원, 관할 농업협동조합 담당직원 및 헬기방제회사 대표 등 19명이 한자리에 모여 무인헬기 공동방제 운영 협의회를 가지기도 했다.

사업은 농협과 행정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며, 병해충을 종합적으로 방제하게 된다. 오수면 등 5개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는 청운, 관촌, 성수면까지 확대된다.

1차 공동방제면적은 2,007ha로 오수면 582ha, 지사면 405ha, 산계면 382ha, 신덕면 231ha, 임실읍 220ha, 성수면 83ha, 관촌면 57ha, 청운면 47ha이며, 무인헬기 20여대가 투입된다.

8개면 전체 3,780ha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6억3,800만원이 투입된다. 이중 방제비의 40%는 임실군에서 지원하고, 20%는 오수관촌농협(조합장 김학운)과 임실농협(조합장 이재근)이 부담하며, 농가는 40%를 부담한다.

방제대상 병해충은 벼 수량감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삭도열병과 세균성 벼 알라름병, 잎집무늬마름병, 이화명충, 흑명나방, 노린재, 밀구류 등이다.

군은 또한 헬기방제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은 총 1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568ha를 대상으로 종합살균제와 종합살충제를 농가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장 옥 기술보급과장은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헬기공동방제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임실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